러시아 大選 結果分析

1996. 7.

余 仁 坤 (國際研究室長)
姜 元 植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硏究院의 硏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硏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硏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硏究院 國際硏究室

- 目 次 -

Ⅰ. 問題提起 1

Ⅱ. 大選 過程과 結果 2

1. 大選 過程 2

2. 大選結果 및 評價 6

Ⅲ. 러시아 對內情勢와 對外政策 展望 12

1. 對內情勢 展望 12

2. 對外政策 展望 14

Ⅳ. 우리의 考慮事項 17

Ⅰ. 問題提起

ㅇ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 붕괴(1991.12) 이후 최초로 실시된 大選에서 승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신의 改革政策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그러나 옐친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향후 러시아 정국은 좌파와 민족주의 세력의 浮上 및 옐친 자신의 건강악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한 상태임.

ㅇ 대선이후 전개될 러시아의 對內政治·經濟 상황은 대외정책의 변화유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본 보고서는 러시아 대선 결과를 分析·評價하고 옐친 대통령 집권 2기에 전개될 러시아 對內情勢와 對外政策을 전망하는 한편,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Ⅱ. 大選 過程과 結果

1. 大選 過程

ㅇ 러시아는 6월 16일(1차투표)과 7월 3일(결선투표) 2차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는 바, 금번 러시아 대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음.

- 첫째,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 최초로 실시된 대선이었음.[1]
- 둘째, 구소련이 유지하여 왔던 사회주의와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民主主義와 市場經濟 體制로 전환시켜 온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중간평가를 받았음.

ㅇ 러시아 연방하원인 국가두마에 대한 제2차 總選(1995.12.17)[2] 이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마감일(1996.6.14)까지의 러시아 대선 정국은 아래와 같이 3기로 구분될 수 있음.

ㅇ 제1기(1995.12.17~1996.2.14)는 제2차 총선을 통해 「공산당」과 「농민당」 등 반개혁·반정부 정당들의 세력이 국가두마에서 더욱 강화된 상황하에서,[3] 각종 與論調査에서 옐친 대통령의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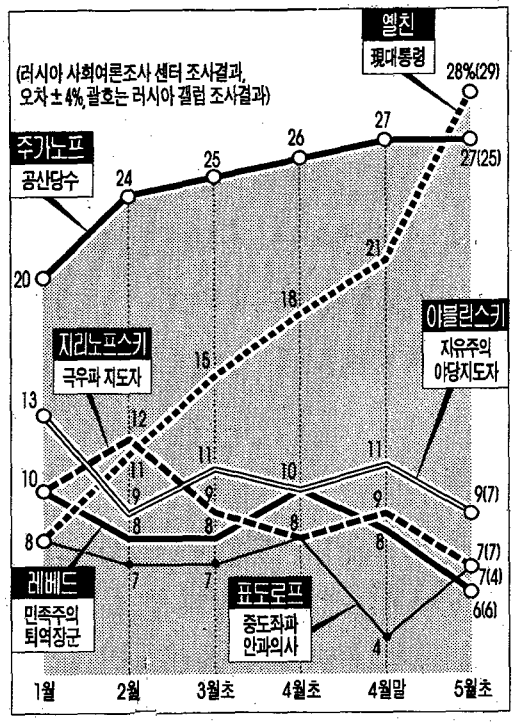
---

1) 현재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1년 6월, 즉 소련이 붕괴(1991.12)되기 이전에 실시된 임기 5년의 소연방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었음.
2) 최초의 국가두마 총선은 1993년 12월 12일 실시되었음.
3) 국가두마의 총선결과 450석의 의석분포가 개혁파 정당 14%, 친정부 정당 12%,

가 체첸사태의 악화와 심장병으로 인한 재입원 등으로 5~8%의 최하위 상태(<표 1> 참조)이었던 시기임.

- 따라서 옐친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제1위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의 執權 可能性 여부가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음.

<표 1> 대선 후보지지율(%)



중도파 정당 0%, 좌파정당 41%, 민족주의 정당 12%, 무소속 17% 등으로 확정되었음. Robert W. Orttung, "Duma Elections Bolster Leftist Opposition," *Transition*, 23 February 1996, p. 7 참조.

○ 제2기(1996.2.15~4.28)는 옐친 대통령이 에카테린부르크 市에서 대선 공식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각 입후보자들은 자신과 노선이 유사한 政黨이나 정파들과 연합전선을 모색하는 등 사실상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음.

- 옐친 대통령의 선거운동본부는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여 「우리집 러시아」와 「러시아 여성」 등 친옐친 정당과 社會·經濟團體들을 규합, 「옐친 재선을 위한 전러시아 운동」이라는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하였음.
- 「공산당」은 대선 전략용으로 소연방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결성에 관한 소연방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결정(1991.12.12)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채택(1996.2.20)하고 국가두마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4] 20여개 강경좌파 정당과 사회단체는 「인민·애국세력」을 창설하고 주가노프 支持를 표명하였음.
- 이 시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옐친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상승하였는 바, 이는 체첸 평화안 발표(3.31), 경제개혁의 부작용 시정 및 체불연금과 체불임금의 청산 약속, 옐친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주요 言論들의 비판자제 및 미국과 독일 등 서방선진국들의 지지표명, 「국제통화기금」(IMF)의 102억달러

4) 국가두마는 「공산당」이 제출한 소연방 해체 불법화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3.15), 러시아 연방상원인 연방회의는 동 결정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3.19)하였음.

차관제공 약속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17명이 대선후보 登錄을 하였으나, 이중 11명이 적격 후보자로 판정받았음.[5]

○ 제3기(4.29~6.14)는 공산계 후보인 툴레예프가 주가노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0명의 후보가 대권 경쟁을 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

- 옐친 대통령의 독선을 批判하던 개혁파 가이다르 前 총리서리와 알렉세이 2세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 등이 옐친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각종 여론조사에서 옐친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음(<표 1> 참조).
- 야블린스키, 레베드, 표도로프 3후보의 중도파 연합형성 움직임이 대선의 새로운 變數로 등장하는 가운데, 옐친 대통령과 야블린스키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음.
- 대선 정국이 옐친 대통령과 주가노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르자코프 경호실장이 內戰 등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사회혼란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대선연기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옐

5) 11명의 대통령 후보는 옐친, 주가노프, 「자민당」 당수 지리노프스키, 고르바초프, 급진개혁주의자 야블린스키, 장군출신 민족주의자 레베드, 「노동자 자치정부당」 당수이며 유명한 안과의사 및 국가두마 의원인 표도로프, 친개혁적이나 옐친 정책에 비판적인 샤쿰, 국가두마 의원이며 백만장자인 브란찰로프, 공산당원인 툴레예프, 고르바초프 시대에 친개혁주의자이었으나 1991년 이후 민족주의자로 전향한 블라소프이었음.

친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였음.

2. 大選結果 및 評價

○ 신헌법(1993.12.12 채택)에 따라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러시아 대선이 약 9만 3,50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6.16)되었음.

- 만 18세 이상의 총 유권자 약 1억 600만명중 7,574만명이 투표에 참가, 약 69.81%의 投票率을 나타냈음.

○ 각 후보자별 득표율은 옐친 대통령 35.28%, 주가노프 32.03%, 레베드 14.52%, 야블린스키 7.34%, 지리노프스키 5.70%, 표도로프 0.92%, 고르바초프 0.51%, 샤쿰 0.37%, 블라소프 0.20%, 브란찰로프 0.16% 등이었음.

- 이는 작년 12월 국가두마에 대한 제2차 총선시 각 정당·정파들이 政黨比例代表制에 따라서 유권자들로부터 획득한 지지도와 유사함.[6]
-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도를 받았던 군장성 출신의 민족주의자 레베드가 3위를 차지한 것은 대외적으로 강력하고 대내적으로 안정된 러시아를 希望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때문

6) 당시 개혁파 정당 20%, 친정부 정당 11%, 중도파 정당 2%, 좌파 정당 32%, 민족주의 정당 20%, 이익집단 및 지방정당 10% 등의 지지도가 각각 나타났음. Robert, W. Orttung, op. cit., p. 7 참조.

인 것으로 분석됨.

ㅇ 러시아 대통령 선거법에 의하면 총투표자중 50%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바, 1차투표에서는 어느 후보자도 당선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서 옐친 대통령과 주가노프간의 決選投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결과 발표 1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7월 3일로 결정되었음.

ㅇ 결선투표시까지의 러시아 대선정국은 옐친 대통령이 약 5일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나, 레베드와 야블린스키 등의 옐친 지지선언으로 옐친 대통령의 勝利가 예상되었음.

- 옐친 대통령은 레베드를 안보담당 보좌관겸 국가안보위원회 서기에 전격 임명(6.18)하는 한편, 부패관료로서 선거연기나 취소를 주장해온 정부내 强硬派 그라초프 국방장관,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 코르자코프 경호실장 등을 해임함으로써 개혁정책의 지속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켰음.
- 반면 주가노프는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으나, 어느 단일 정치세력도 지배적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국가화합'을 위한 연정과 이에 필요한 헌법 개정을 促求하였음.

ㅇ 유권자의 68.89%가 참가한 결선투표(7.3) 결과 옐친 대통령이 53.8%, 주가노프가 40.3%를 각각 획득하였는 바, 옐친이 차기 대통령으로 確定되었음(8.9 취임 예정).

- 1차투표에서 레베드, 야블린스키, 지리노프스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결선투표시 예상 지지율은 다음과 같았음.

<표 2> 決選投票 豫想 支持率(%)

(全러시아 여론조사센터 조사)

제 1 차 투 표 지 지 후 보	옐 친	주가노프	모두반대
레 베 드	36	24	27
야 블 린 스 키	49	12	29
지 리 노 프 스 키	9	32	48

* 1차투표전 유권자 1천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 1차투표에서 레베드, 야블린스키, 지리노프스키 각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有權者에게 "결선 투표시 누구에 투표하겠는가 ?"라고 질의.

- 따라서 결선투표에서는 레베드 지지자의 1/3, 야블린스키 지지자의 1/2, 지리노프스키 지지자의 1/10 정도가 옐친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으로 추측됨.

ㅇ 옐친 대통령이 이와 같이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여 再執權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옐친 대통령은 공산당 집권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과 국민들의 불이익을 적극 부각시키고 1차투표 직후 레베드와 야블린스키 등 3~4위 탈락후보들의 지지를 확약받음으로써 부동표 획득에 성공하였음.
- 러시아는 타타르족에 의한 지배와 짜르의 전제정치 및 공산통치 등으로 권위주의적 政治文化를 갖고 있으며, 국민들은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음. 주가노프의 지도력 부족으로 대선 이전에는 '先 주가노프와 레베드의 연합, 後 레베드 대선출마'를 강력히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는 바, 지도력 면에서 주가노프는 옐친 대통령에 필적하지 못하는 것 같이 평가됨.
- 옐친 대통령은 5년간의 개혁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켰으며, 경제개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國內總生産(GDP)면에서 최초로 1996년 1%, 1997년 4%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7] 대선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중 37%가 정치에 無關心을 보이고 있는 한편, 33%가 현체제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선진자본국들이 공산정권의 등장방지를 위하여 옐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여 왔으며, 대선을 앞두고 IMF가 3년 동안 102억달러 借款을 약속하는 등 국제

---

7) EIU, *Country Report : Russia, 2nd quarter 1996* (London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1996), p. 8.

금융기관들도 옐친 정부를 적극 지원하였음. 러시아 유권자들은 이러한 점을 도외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됨.

ㅇ 금번 러시아 大選結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음.

- 신생 러시아 역사상 최초의 대선이 조직적인 선거부정이나 폭력사태 등의 발생없이 대체로 공정히 실시됨으로써 대내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정착의 基礎가 마련되었음.
- 옐친 대통령은 대선이라는 중간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획득함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자신의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음.
- 금번 대선에서는 옐친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와 청년, 지식인, 기업가 등 개혁선호 階層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반면, 주가노프는 러시아 북부의 광산지대, 남부의 농업지대와 노동자, 농민, 노인과 퇴역군인 등 연금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 이에 따라서 러시아내에서 지역과 계층간 사회적 分裂現象이 뚜렷이 노정되었음.

ㅇ 한편 정치, 경제, 사회, 외교면에서의 쟁점들에 대한 대선 주요 입후보자들의 입장은 <표 3>과 같았음.

<표 3> 쟁점사안들에 대한 大選 주요 입후보자들의 立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외교면
옐 친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 민주개혁 지속	시장경제로의 개혁, 사유화 정책, 긴축통화정책	범죄·부패척결,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지원	국익중심외교, 서방과 동반자 관계, NATO 확장반대
주가노프	구소련의 온건한 회복, 의회중심제 헌법	국가통제 강화, 혼합경제 지지, 토지사유화 반대, 전략산업의 국유화	개혁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법과 질서 유지	구소련의 정치·경제통합, NATO 확장 강경반대
야블린스키	급진개혁, 체첸에 군사공격 반대	사유화 촉진, 경직된 통화정책반대, 민간투자 촉진	부패척결, 사회보장의 촉진, 중산층 이익대변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긴밀한 경제관계, NATO 확장 반대
지리노프스키	극우민족주의, 강력한 러시아 건설	약간의 시장개혁 수용, 외국의 투자로부터 러시아산업 보호, 군수산업의 활성화	범죄척결, 알콜가격 인하	러시아국경 확대, NATO 확장 강경반대, 군수물자 수출
레 베 드	강력한 대통령제, 체첸독립 허용	국가주도의 시장경제, 점진적 경제개혁, 러시아산업 보호	범죄척결 등 질서회복을 최우선시	강대국 러시아 재건, 구소련 공화국들과 긴밀한 결합, NATO확장 강경반대

Josefine Bollinger-Kanne, Thomas Sauer, "Russland vor der Wahl : Wohin geht der wirtschaftliche Kurs?" *ifo Schnelldienst,* 48, Jahrgang/6, Dezember 1995, pp. 32~44참조.

Ⅲ. 러시아 對內情勢와 對外政策 展望

1. 對內情勢 展望

○ 금번 대선에서 민의가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바, 옐친 대통령은 정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개혁을 지속할 것임.

- 특히 레베드 중심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 및 부패 척결운동을 推進함으로써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개혁의 속도를 완화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측됨.

○ 옐친 대통령은 레베드의 등용과 함께 권력측근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는 바, 레베드와 옐친 측근간의 權力鬪爭이 향후 러시아 정국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라초프 국방장관 후임에는 야전군 출신인 콜레스니코프 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으며, 후임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크로피빈 연방경비대장, 제1부총리에는 로보프 전 국가안보위 서기, 연방보안국(FSB) 국장에는 코발료프 FSB 제1부국장이 각각 任命되었음.
- 그러나 레베드에게 안보위 서기직을 넘겨주었던 로보프는 前 경호실장 코르자코프와 함께 「크레믈린 매파」로 분류되는 이

른바 「전쟁당」의 핵심인물이며, 크로피빈도 코르자코프 측근임.

○ 한편 비록 패배하였으나, 금번 대선을 통하여 러시아내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浮上한 주가노프 및 「공산당」의 정치적 역할이 의회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옐친 대통령과 주가노프간의 대결이 체제논쟁이나 이념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 政局이 전면적인 혼돈상태로 될 가능성은 희박함.
- 단지 신생 러시아 출범이래 지속되어 온 의회와 정부간의 오랜 갈등은 개혁의 속도와 폭을 둘러싸고 옐친 대통령 집권 2期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옐친 정부는 금번 대선과정에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임금인상과 통화발행을 단행하였는 바, 향후 경제면에서 재정적자와 인플레 재연 등 選擧後遺症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결국 집권 2期를 맞이하는 옐친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겨냥한 새로운 내각 구성과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혁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할 것임.

2. 對外政策 展望

ㅇ 옐친 대통령 집권 2期의 대외정책 방향은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적극적인 후원과 '강대국 러시아'를 갈구하는 국내 여론의 조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임.

- 전반적인 러시아 대외정책은 국익우선의 獨自外交 路線이 견지되는 가운데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반면, 親西方政策이 크게 후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NATO의 동구 확장문제를 둘러싼 미·러간의 갈등은 민족주의자 레베드의 대통령 안보보좌관직 담당으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협력하에 경제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 바, 미·러간 경제협력 관계에는 근본적인 變化가 예상되지 않음.

- 옐친 대통령이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위해 대외 영향력 회복정책을 적극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經濟支援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ㅇ 향후 옐친 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익 우선적이며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 바, 이에 따라서 東北亞 域內

에 대한 한반도 주변 4국들의 영향력 확대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임.

-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일·러관계에서는 경쟁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北方領土 問題에 관한 양국간 협상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러간에는 李登輝 대만총통의 방미(1995) 이후 對미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의 對러 협력필요성과, 무기수출 및 NATO의 동구확대를 고려한 러시아의 긴밀한 對중관계 필요성 등으로 선린우호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한반도 정책과 관련,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된 等距離外交를 강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확대하고자 할 것임.

- 옐친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좌파의 의회장악과 금번 대선을 통한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 등으로 한국 中心의 한반도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
-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카드로 활용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4자회담 등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參與 保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도 러시아내 정세변화에 편승, 외교고립 타개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협확대를 위해 고위 지도자 상호교환 방문 등을 통한 對러關係 强化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Ⅳ. 우리의 考慮事項

ㅇ 옐친 대통령의 건강악화 가능성과 차기대선(2000년 6월)을 고려하여 「우리집 러시아」 당수 체르노미르딘 총리와의 人的 關係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옐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러시아 연방헌법(제92조 2항과 3항)에 의거하여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대통령직을 臨時代行하며 3개월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계와 중도세력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체르노미르딘은 금번 대선 이전에는 한동안 옐친 대통령의 후계자로 浮上되기도 하였으며, 대선 이후에는 총리에 재임명되어 국정 전반과 경제문제를 관장하고 있음.

ㅇ 이번 러시아 대선 과정에서 주가노프와 레베드 등 야당 후보들의 약진현상이 두드러졌는 바, 러시아내 在野勢力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도 확대해야 함.

ㅇ 정부는 對러 경제협력 정책을 보다 적극화함으로써 러시아의 對북관계 복원정책을 牽制하고 4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입장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이즈베스티야」紙(1996.6.6)는 "한국과의 어떠한 관계가 필요

한가?"라는 국가두마 지정학위원회 동남아·태평양小委員會 위원장 M. Monastyrskii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는 바, 그는 한국의 對러 외교 및 경협정책을 격렬히 비판·비난하면서 한·러관계가 전반적으로 再調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8]

○ 중·미관계 경색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이후 중·러·북한간 北方 3角關係의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바, 對중 및 對러 정치·안보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 일 등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强化해야 할 것임.

8) *Izvestiya,* 1996. 6. 6, p. 4.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91-01 轉換期의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91-03 北韓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2-05 轉換期의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93-03 中國의 改革·開放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强의 立場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2-06 軍備統制 檢證 硏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92-07 北韓住民의 人性硏究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硏究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92-11 東北亞 經濟協力의 發展方向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硏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硏究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査 結果
93-02 金日成著作 解題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硏究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硏究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硏究
93-15 金正日著作 解題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硏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93-19 예멘 統合事例 硏究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畵分析을 中心으로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硏究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硏究(改訂版)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93-26 日本의 核政策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硏究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硏究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94-07 金正日 리더쉽 硏究
94-08 北韓 民族主義 硏究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强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擧制度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硏究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 關聯

94-20 「조선전사」 解題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94-24 韓國 民族主義 硏究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硏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硏究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硏究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硏究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硏究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硏究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硏究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6-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査 結果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쵸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옐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의 發展方向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94-10 韓·러關系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94-18 美國의 中間選擧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統一硏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硏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硏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硏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硏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硏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硏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硏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硏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硏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95-01 藏書目錄: 單行本·硏究報告書(追錄I)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硏究(上)
94-02 統一文化硏究(下)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러시아 大選 結果分析

統一情勢分析 96-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FAX : 238-329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6년 7월 일
發行日 1996년 7월 일